

# 회학

言語는 사람의 입  
 으로서 말하고 귀  
 로서 듣는 符牒의  
 集合體이니라。  
 (히트네)

第三卷 第四號 (四月號)

값七錢

차		목	
독자의 사명	독자를 制限하자	송진	송진
普通學校朝鮮語讀本	完成	송진	송진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	송진	송진
朝鮮語讀本	語彙調査 (五)	송진	송진
한글 연구	圖書 解題 (3)	송진	송진
한글	바루잡아쓰기 익힘	송진	송진
가라지 노래	(童謠)	송진	송진
朝鮮歷史	講話 (三)	송진	송진
로빈손	無人絶島 漂流記 (二)	송진	송진

京城府鍾路二丁目九十一番地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振替口座京城一四六三八番  
 電話九七五五七番

延禧專門學校教授 崔鉉培先生 著

# 중국어조선어사전말본

再版發行

定價八十錢・送料六錢

- 1 標準 朝鮮語 文法。
- 2 最良의 朝鮮語 文法 教科書。
- 3 一般 朝鮮語 研究의 基礎智識의 提供書。
- 4 數十年 專心 研究한 結果의 要領書。

內容은 一  
聲音篇・  
品詞篇・  
文章篇을  
全部網羅  
하였다。

崔鉉培先生 著

## 우리말본

定價 九〇錢  
送料 四錢

『우리말본』도 崔鉉培先生의 著이다。 한글을 알려는  
그의 母論이 어니와 特히 朝鮮語文法 研究에는 이보다 더  
좋은 參考書는 없다。 일이라! 『우리말본』을 그리하여  
體系있는 우리말을 하두바베 배워가자。

崔鉉培先生의 著인 『중등조선어사전』 初版은 發賣 三箇月에 없었었다。 일즉이 朝鮮의 出  
版界에 없는 무서운 人氣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사람이 얼마나 한글을 알고 애를 쓰  
고 있는 것과 崔先生이 이 方面에 數十年 동안 專心으로 研究하신 보람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京城府 堅志洞 三二

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 꽃 밭

봄날 풀밭에 누어서  
 눈감고 조용히 들으면  
 어디선가 美妙한 音樂이  
 하나도 아니오 여럿이  
 數千 數萬의 숨소리가  
 귀를 막어도 울려오는

仙女의 合唱 소리가  
 四面으로서 일어나서  
 내 神經을 震동합니다.  
 그것은 無數한 生命이  
 검은 흙속에서 때를 세는  
 神秘의 曲調입니다.  
 시방 그 조용한 속에 잇는 힘을  
 나는 들읍니다. 말읍니다. 만집니다.  
 太陽과 空氣가 그 힘으로  
 내 靈魂을 떠감집니다.

(금년 자월에 새로 발행된 中等教育 朝鮮語及漢文讀本 卷三에서.  
 마음법은 꼭 책에 잇는 그대로)



# 조선말



6818047

## 씨의로 (三)

이  
극  
로

### 三. 어찌씨의 보법 도어법

(副詞的 添加補助格)

이 도움토는 어찌씨의 뜻을 가지고 토의 자리를 나타내는것인데, 아홉 가지가 있다. 그런데 임자토의 두법과 한가지토와 건드림토는 제 하나만도 뜻과 자리를 다 나타내고 부름토와 또 임자씨와 잇닿는 토에는 도무지 못 불고, 그 밖에는 모든 임자씨의 토에 붙어서 어찌씨의 뜻만 나타낸다.

① 또한토(亦如格)。다른것과 한가지임을 나타내는 토이다. 一도。

나도 간다. 네가졌도 먹나.  
불이 이름도 된다. 그것이 돌도 아니다.

② 홀로토(唯獨格)。그것에 한정함을 나타내는 토이다.

1만。

개만 짓는다. 학생이 글만 읽나.  
을창이가 개구리만 된다.  
죄가 그것만 아니다.

③ 가리침토(指定格)。특별히 집어내어서 말하는 토이다. 1는(홀소리 밑), 1은(닿소리 밑), 1(으)르랑.

대는 푸르다. 자네가 일은 하는가.  
네가 학자는 되겠다. 내가 학생은 아니다.  
넬랑 집에 가거라.  
아이가 책을랑 샀다.

④ 가림토(選擇格)。여럿 가운데에 하나를 들어 말하는 토이다. 1(이)나

네나 책을 보아라.  
자네가 종이나 먹이나 사게.  
그 말씀은 웃음꺼리나 되겠다.  
저것이 범이나 아닌가.

⑤ 안가림토(不擇格)。무엇이나 하나를 들어내는 토이다. 1(이)든지, 1(이)라.

누구든지 오시오. 무엇이든지 줍니다.  
나는 경우를 따라 농부든지 병청이든지 되겠다.  
당신의 짓은 일이든지 작난이든지 아니다.  
앞사귀라 가지라 지치고 마네.

⑥ 달리토(特異格)。특별히 다름을 나타내는 토이다.

1(의)야.

내야 그 일을 하겠나.

내가 그 일이야 하겠나.

그이가 칭치가야 된다.

그이가 충신이야 아니다.

⑦ 덜참토(不滿格)。마음에 덜 찬것을 나타내는 토이다.

다. 1(의)나마.

그나마 있으면, 좋겠다.

죽이나마 잡수시오.

네가 교원이나마 되어라.

저 사람의 나의 술친구나마 아니다.

⑧ 능퇴함토(能爲格)。모자람이 없음을 나타내는 토이다.

다. 1(의)그들.

소경인들 그 길을 못 가겠읍니까.

소경이 그 길인들 못 가겠읍니까.

선생이 어찌 도덕군잔들 못 되리오.

그놈의 험잡군인들 아니라.

⑨ 센뜻토(強意格)。또한토와 달리토 그 위의 붙맺는토

「라」를 더하여 그 보뜻을 세게 만드는 토이다. 1(의)라모. 1(의)라야.

아이라도 그 일은 하겠다.

아이가 그 일이라도 하겠다.

나는 농부라도 되겠다.

그 사람의 하는 일은 작난이라도 아니다.

네라야 간다.

그 사람은 슬이라야 먹는다.

### 四. 어찌씨의 활용과 논어제어

(副詞的 單用 補助格)

이 도움토는 어찌씨의 뜻을 가지고 다만 임자토의

두루범과 한가지 토와 건드림토와 대증토와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그런것이 네가지가 있다.

① 다토(每每格)。하나도 빠짐이 없는것을 나타내는 토이다. 1(의)나마.

병칭마다 총을 메었다.

순사가 사람마다 묵었다.

비가 날마다 온다.

② 처음토(始初格)。맨 먼저를 나타내는 토이다. 1부

터

당신부터 앉으시오.

학생은 책부터 산다.

바람의 어케부터 분다.

③ 미침토(到及格)。미처어 대임을 나타내는 토이다.

1까지. 1조차. 1쉬건.

나까지 밤을 먹어요.

내가 밤까지 먹어요.

# 틀기보 는이

(쓰만식나)

## 부류

1. 이름씨의 발가지 (名詞의 接尾語)  
 뜻이 있으면서도 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  
 끝에 붙어서 쓰이는 것이 발가지다. 또는 발가지 뒤에

붙어서 쓰인다. 이 발가지와 도를 후 섞어볼까 걱정  
 하야 아래에 이름씨의 발가지의 본보기를 얼마 들어  
 보인다.  
 질(行爲) || 선생질, 둠질, 험잡질.  
 쫘(程度) || 한달쫘, 십리쫘, 시근쫘.

남의말토 : 고	밖토 : 바께	막바지로 : 꺾	함께로 : 끼리	따루토 : 대로	자리토 : (으)로서	부림토 : (으)로	대입토 : (으)로, 에게로, 한	떠남토 : 에서, (서)에게서, 한테서	만답토 : 에, 에서, 깨, 에게
고도	바께도	꺾도	끼리도	대로도	도(으)로서	(으)로도	(으)로도	에서도	에도
고만	바께만	꺾만	끼리만	대로만	만(으)로서	(으)로만	(으)로만	에서만	에만
고는	바께는	꺾은	끼리는	대로는	는(으)로서	(으)로는	(으)로는	에서는	에는
고나	바께나	꺾이나	끼리나	대로나	나(으)로서	(으)로나	(으)로나	에서나	에나
고든지	바께든지	꺾이든지	끼리든지	대로든지	든지(으)로서	(으)로든지	(으)로든지	에서든지	에든지
고야	바께야	꺾이야	끼리야	대로야	야(으)로서	(으)로야	(으)로야	에서야	에야
고나마	바께나마	꺾이나마	끼리나마	대로나마	나마(으)로서	(으)로나	(으)로나	에서나마	에나마
고늘	바께늘	꺾이늘	끼리늘	대로늘	늘(으)로서	(으)로늘	(으)로늘	에서늘	에늘
고라도	바께라도	꺾이라도	끼리라도	대로라도	라도(으)로서	(으)로라	(으)로라	에서라도	에라도

# 쓰여모 의도

하 기보본)

비슷함토 : 처럼	쫘토 : 만큼, 만척, 만	틀림토 : 보다	전출토 : 와, 파	토 자 임		임 15) 자 어 가 씨 의 꺾 (지) 밀 씨 의 자 리 탕 보 가 리 자 도 토 움 (지)
				임법 : 서	남법 : 꺾서, 꺾음서	
처럼도	만큼도	보다도	와도	서도	꺾서도	도 } 토한도
처럼만	만큼만		와만	서만	꺾서만	만 } 토로홀
처럼은	만큼은	보다는	와는	서는	꺾서는	은, 는 } 토침리가
처럼이나	만큼이나	보다나	와나	서나	꺾서나	나(이) } 토림가
처럼이든	만큼이든	보다든지	와든지	서든지	꺾서든지	지든(이) } 토림가안
처럼이야	만큼이야	보다야	와야	서야	꺾서야	야(이) } 토리달
처럼이나	만큼이나	보다나마	와나마	서나마	꺾서나마	마나(이) } 토참덜
처럼인들	만큼인들	보단들	와들	선들	꺾선들	들(이) } 토합덕덕
처럼이라	만큼이라	보다라도	와라도	서라도	꺾서라도	도라(이) } 토뜻센
						야라(이) }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너조차 나를 미워하나.  
 비가 나조차 미워하나.  
 노형의 서울조차 구경을 못하였습니까.  
 나처럼 그 모임에 들렀습니까.  
 내가 그 모임처럼 만들었느냐.

키 부자는 그런 사람처럼 밤을 준다.  
 ④ 마지막도(最終格)。맨 끝을 나타내는 토이다. 1마  
 자.  
 뜻대미지 부러지었다.  
 키 선비는 집마자 팔아먹었다.  
 그 친구는 아들마자 공부를 못 시기었다.

# 가도움도 의씨찌어 틀기보 는이쓰여모

(이 보기들은 五 페이지 「토의 모여쓰이는 보기를」 아래에 대어 있을것)

머침토 : :까지, 조차, 서편	까지도	부러도	파다도	나파도	만도	6) 어찌어찌 가의보람 (지)도움 토	9) 어찌어찌 의보람 가(지) 토움
처음토 : :부터	부러도	파다도	나파도	만도	도 } 토한도		
다토 : :마다	부러만	파다만	나파만	만만	만 } 토로홀		
덜참토 : : (이)나마	부러는	파다는	나파는	만은	은.는 } 토침리가 랑(으)		
다도 : :마다	부러나	파다나	나파나	만이나	나(이) } 토림가	도나	
머침토 : :까지, 조차, 서편	부러든지	파다든지	나파든지	만이든지	지든(이) 라(이) } 토림가안	도야	
처음토 : :부터	부러야	파다야	나파야	만이야	야(이) } 토리달		
다토 : :마다	부러나마	파다나마	나파나마	만이나마	마나(이) } 토참덜		
덜참토 : : (이)나마	부러들	파다들	나파들	만이들	들(이) } 토함너너		
머침토 : :까지, 조차, 서편	부러라도	파다라도	나파라도	만이라도	도라(이) 아라(이) } 토뜻센		

짜리(價格) || 심원짜리, 열량짜리.  
 식(團) || 하루식, 두사람식, 쇠말식.  
 들(複數) || 학생들, 농부들, 아이들.  
 따위(類) || 너따위, 이사람따위, 쉰따위.  
 님(尊稱) || 아버지, 형님, 선생님.  
 네(自體) || 당신네, 맥네, 안악네, 어르신네.  
 二, 불완전한 어찌씨 (不完全副詞)  
 불완전한 어찌씨는 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마땅히  
 서로 매인 이름씨의 토와 함께 쓰인다. 아래에 본보

기로 얼마 들어보인다.  
 하여금(使) || 사람으로 하여금  
 더부러(與) || 너로 더부러  
 씨(以) || 붓으로 씨  
 함께(共) || 자네와 함께, 아들과 함께  
 말로(眞) || 당신이야 말로, 내야 말로  
 부러(自) || 집에서 부러 씨울로 부러  
 커녕(反) || 사람은 커녕 짐승도 없다.  
 새루(反) || 떡은 새루 밤을 못 먹었다. (끝)

# 독자의 사명

송 주 성

우리 문화의 향상과 발전은 오직 한글운동을 토대로 삼아야 될것을 믿는자이다. 우리글은 세상에 돌도 없는 훌륭한 보배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이런 보배를 어리석게도 과문어 두었던것이다. 다행히도 모회 조선어학회의 희생적 노력으로 우리글의 참된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또한 이의 통일 보급의 힘찬 발걸음을 내어 놓은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 오직 앞날에 살아야 한다.

우리 대중은 모두 이 뜻 있는 사업을 받들며, 복종하여야 한다. 그렇다 대중은 다 가치따른것이다. 그리하여 멸지 않는 장래에 한글의 통일 보급의 완성을 고할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피하여야 할것이다. 그러함에는 오직 대중의 자각과 분발이 있고서야 될지니, 이러한 긴급한 정세에 있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자 얼마인가. 다시 말하면 아직 한글을 반철이나 언문으로 아는자 얼마이며, 한글의 보배로움과 그 문화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고사하고 이를 천대경멸하는자가 아직 그 얼

# 漢字를 제한하자

진 집 종

지금으로부터 오백년이 가까운 옛날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하던 그때에는 우리 조선 안에 완전한 문자(文字)가 없었고 중국의 글 한자(漢字)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서, 관공문은 물론이요, 모든 서적이며 민간의 서진왕복까지 모두 한문으로 기록되어있고 인쇄되었다는것은 다 아는바이지만, 홀로 우리에게 우리의 고유문자가 없었으므로, 어쩔수없이 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물을 적고 사상을 전하려고 부득이 한자를 차용하기는 하나, 원래 남의것이므로 우리의 말과 글에 안 맞는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완전한고유문자가 없어서 사물을 적지 못하고 애라는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큼을 짐작할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배워 사용하는것이 그리 용이한일이 아니라는것을 사오백년전 그때에는 몰랐을지라도, 지금쯤은 넉넉히 깨닫고도 남을것이다.

한문자가 심히 어렵고 그 수요가 극히 많아서 학습하여 이용하기 곤란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마나.

다행히 우리들의 이해를 가진이라도 다만 한글의 보급으로만 찬란할뿐이며, 한글 통일 보급의 큰 사업을 더잡음에 대한 공로를 양찬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되, 그 운동 그것에 이르러서는 그 커 일부 학자 처선 생의 책임에게만 돌리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글운동은 너무나 그 사명과 뜻이 크다. 또한 한글은 일부의 사회에서만 독차지할 것이 아니다. 한글의 주인은 우리 대중 친척이다. 이리함에서 오늘날 한글운동은 좀 더 총동원하여야 되겠다고 믿어 마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 대중은 입음에서 한결음 시김으로 나가자! 그리하여 좀더 적극적 자각을 피하자! 그리함 이 우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그리함에는 오직 한가지의 효과적일요 실체적의 길 이 있나니, 그는 관심을 가진다고 하여 못된 이론을 떠버림도 아니요, 부질없는 공상도 아니요, 한갓 우리 사회의 참된 자부(慈父)가 될 우리 어학회의 존귀성을 재인식하며, 그의 가르치는 길을 충성되어 따르는 종이 되고 제자가 되어, 그 직분을 다함에 있다. 그는 곧 「한글」을 선전하여 그 구독자를 많이 얻자는 것이다.

실사 힘써 그 대부분을 습득(習得)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자를 이용하여 우리말과 글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쓰므로 하여금 조선말을 한문글자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후 사상을 전달함에도 자연히 한문으로 쓰게 되었다. (吏讀 鄉札이 아주 없지는 아니하지만) 그러하므로 일상생활에 극히 필요한 통신왕복쯤만 하게 한문을 해독하려면 적어도 오륙년 또는 근 십년의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므로 깊은 학술은 연구할 생각조차 못하였을 것이다. 또 이러한 오랜 세월과 그동안에 소용되는 많은 금품(金品)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상국(理想國)은 아니었으므로, 일부의 유권급(有權級)의 부유한 자녀들이나 누릴 수 있는 한문 공부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세가 넉넉하지 못한 대다수의 자제들은 그만 성명도 쓰지 못하는 무식군이 되기 가 예사일 것이 아닌가. 따라서 문화가 뒤질 것도 사실이며, 유족하고 소수인 그들의 머리에서 더욱이 단축한 시일동안에 천박한 지식을 얻어 가지고 결인결작(傑人傑作)과 신묘한 발명이 잇대어 나오지 않는다 고 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못사람의 치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백년전의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참으로 성인이다. 대각자(大覺者)이시다. 우리가 한자(漢字) 사용으로 말미암아 무한히 고등받을 시기가 이르리라는 것을 깨달으

「한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글의 통일 보급은 그 결  
 음이 더딜것이다。 모름지기 「한글」이 보급되는대서만  
 통일 보급이 있을줄 안다。 다 가치 누구나 독자들은  
 아직 「한글」의 존재를 모르는이에게 선권하자。 한달에  
 다섯명 이상식을 얻자。 그리하여 한글의 통일 보급의  
 대역의 한목식을 다하자。 이것이 오직 앞서 가리친 충  
 보됨의 길이요, 참된 공민으로서의 당연한 가장 좋은  
 면할일줄 믿어 마지 않는바이다。

●新綴字法(마춤법 통일안)으로 註解한

漢文字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漢字를

檢索하는 때에 우리글의 바른綴法을 절로  
 알게 됩니다。宣傳하기爲하여 특히低廉  
 하게 팝니다。꼭 한권씩 가지시오。

最新 日鮮大字典 定價 一圓五十錢

本出版部로 注文하시면, 三割引에 送料  
 까지여기서 뉘니다。곧 一圓만 보내셔도  
 됩니다。

셨도다。 그리하여 그 고등을 면하게 하려고 훈민정음  
 을 반포하셨도다。 당시의 정음 반포야말로 불우에 기를  
 같고, 창해에 조알 던집 같았으나, 크고도 큰 혁명의  
 아닐수 없었다。 반포와 보급에 무한히 노력은 하셨으  
 나, 하여튼 정음의 본질이 우리 조선말에 맞고 지극  
 히 평이하므로 민간에 퍼져서 점점 뿌리를 박아 오  
 늘날의 용성을 보이게 된것이 아닐런가。 만일 그 본  
 질이 우리말에 덜 맞고 배우기 어려웠드면 참으로 창  
 해의 조알이 되어서 지금 우리와는 인연이 없을것도  
 환한 사실이다。

잠간 옛날의 반포하시던 정음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  
 리에게 큰 보배가 됨을 감사하게 여겨 이것을 애용  
 하고 장려할것이거늘, 소수인의 조금의 불편을 말하며  
 구구한 이설(異說)들을 제기하여서 한글의 보급 발달  
 을 저해하고 한자를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것으로  
 믿고, 근거없는 모화사상(慕華思想)을 감행하려는 인  
 사가 있으니, 어찌 가탄하지 아니하랴。

우리는 모름지기 이런 배타정신(排他精神)을 버리고  
 조선의 정신을 가지고 한글의 보급 발달을 꾀하여 한  
 자의 사용범위를 점점 줄이어 멀지않는 날에 한자 권  
 폐의 소리가 일어나서, 우리글에 한문자 혼용이 없이  
 하기를 재촉하며 붓을 놓는다。

改正 綴字法으로 된  
普通 學校 朝鮮語讀本

이제에 비로소 완성

지금으로부터 육년전 소화 사년  
에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개정 언  
문 철자법(改正 諺文 綴字法)을 발  
표하고, 곧 이에 의지하여 보통학  
교에서 가르칠 조선어독본을 고쳐  
편찬하기 시작하여, 그 익년에 보  
통학교 조선어독본 칙재권이 발행  
되고, 그뒤 순차로 하해에 한권씩  
발행하여, 금년 사월에 여섯책권이  
발행되니, 이로써 보통학교의 조선  
어독본의 완성을 고하였다. 이와같  
이 개정된 독본은 철자법만 고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재미있을  
가장 참신한 교재를 골라 넣어서 대  
개혁을 한 것이다. 이책에 유권 가운  
대한과만 뽑아서 아래에 적는다.  
(綴字는 讀本에 있는 그대로 한것)

第一課 釋王寺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釋王寺에

간것은 아주 사구라꽃도 피지 안  
코, 버들눈도 트지 안는 陽曆三  
月末이엿습니다.

아침 여덟시쯤하야 釋王寺驛에  
서 西便으로 通한 坦坦한 길을  
잡아들어 것기를 한 三十分가량  
하야, 沙器里란 部落에 到着하얏습  
니다. 이마에 눈을이고 잇는 웅긋  
쫑긋한 먼 산들, 바구니를 옆에끼  
고나를 캐는 村叢시들...: 메까지  
만하야도 별셔 平凡한 景物이 아니  
엇지마는, 沙器里에 들어가면, 이야  
말로 幽邃境이라고나 할가. 亭亭한  
老松은 鬱鬱蒼蒼하고 潺潺한 溪流  
의 물소리는 집을 엮는 왜가리의  
울음소리와 和하야 곱을 울리니,  
집짓 俗界를 벗어난듯하얏습니다.  
部落에서 얼마되지 안은 곳에  
아담한 門이 잇는데, 懸관에 斷  
俗門 三字가 씨엇고, 거기서 十餘  
메들이나 떨어져서 昇仙橋라는 花崗  
石 다리가 노엇습니다. 斷俗門, 昇  
仙橋...: 엿키면 이리케도 이近傍에  
어울리는 名稱일가 하고, 다시금

左右의 景致에 취하야 버렸습니다.

그 有名한 釋王寺 藥水는 거  
기서 三百메돌도 채 못되는 길  
왼편 시내 건너 언덕에 잇는데,  
물뜨러온 村叢시 두셔넛이 그周  
圍에 둘러썩엇습니다. 徑이 十五  
센치, 깊이가 六十센치 가량되는  
陶管이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  
며, 조곰씩 솟아나는 물을 떠마셔  
본즉, 그것은 꼭 여름갈치, 찬天  
然의 炭酸水엿습니다.  
「응, 이거 참 조라!」  
하고 아버지께서 한모금 마시시  
고 하신즉,  
「砂糖을 너으면 사이다가 됩니다」  
하고 한 섶시가 말하얏습니다.  
우리들도 거기서 한참쉬여셔 또  
올라가기를 시작하얏습니다. 올라  
간다고는 하나, 自動車가 通行하는  
길인고로 그리 대단치는 안얏습니  
다. 길을 시내를 달아 내엿는지 玉  
갈치 맑은 물은 즐창 길걸음으로 흘  
러나리고, 이름도 모를 山새들은 즐  
거운듯이 재재거리며, 각급각급 거

의 발뿌리에 채일만치 갓갑게 날라 왔습니다. 소나무 사이에 사구라, 개나리, 진달래, 신나무들이 섞여 있는것을 보고 나는 꽃철과 단풍철의 景致를 想像하여보았습니다. 登岸閣을 나서서, 寂照橋를 건너 二門、曹溪門을 지나니, 철의 正門인 雪城 東樓가 있는데, 그안이 철이엿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朝鮮에 有數한 철인만치 모든 建築物이 크기도 하고 數도 많아서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엿습니다. 事務所에 가서 아버지의 명함을 내었더니 住持는 곳 맞이하여 茶를 권하며 釋王寺의 由來를 말해주었습니다. 李朝 太祖께서 아직 임금이 되시기 前에, 멀리 金馬로부터 鶴城에 와 계시실 때, 어느날 밤에 自己가 한 破屋 속에 들어가서 석가래 셋을 질머지고 온 꿈을 꾸 엿습니다. 太祖께서는 매우 이상하게 여기사, 近處에 있는 老婆에게 解夢하기를 請하시닛가, 老婆의 말이 「여기서 西으로 四

十里가량되는 雪峯山에 한 異僧이 잇사오니, 거기 가서 물어보소서」하거늘 즉시 가보신즉, 果然 土窟속에 한 중이 이엿습니다. 太祖께서 공손히 禮하시고, 夢兆의 吉凶을 물으셨드니, 중은 「등에 석가래 셋을 질머진 형상을 글자로 풀면 임금 王字가 되오니, 이 꿈은 당신이 쉬 임금이 되실 吉夢이 을시다」하고 對答하엿습니다. 太祖께서는 매우 깃버하사, 즉시 거기에 철을 세우시고 誠心으로 大業이 成就되기를 비셨드니, 果然 그후 얼마안되어서 중의 豫言과 같치 王位에 오르셨습니다. 이 중이야말로 그 有名한 無學禪師이고, 그때 세우신 철이 곳이 釋寺인데, 釋王寺의 이름은 임금王字로 꿈을 解釋함에 말미암은 것이 을시다. 住持의 말은 대개 이와 같았습니 다. 그리고 住持는 우리들을 인도하야 映月樓、泛鍾樓、大雄殿、冥

府殿、應眞堂、釋王祠 其他 寺門의 建築物을 보이고, 거기에 對하야 자세한 說明과 또 傳說같은 것들도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應眞堂의 五百羅漢을 太祖께서 멀리 咸北 吉州로부터 하나씩 업고 오셨다는 傳說과 涵月堂이란 중이 아무것도 모르는 처하고 九年 동안이나 밤짓는 供養主 노릇을 하고 이셨다는 傳說은 特히 우리들을 感動시켰습니다. 철 구경을 다 하고나니, 꼭 열두시가 되엿으므로, 우리는 映月樓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住持에게 致謝한 後 山을 내려가라 한즉, 住持는 挽留하며, 아즉도 以外에 內院庵、香積庵、碧松臺、白蓮庵、安養庵들의 景致 좋은 곳이 만다는 말을 하고, 「인도하야 드릴터이니, 꼭 구경하고 가십시오」 하며 구지 권하얏스나, 時間이 업슴으로 遺憾이나마 다음 機會를 約束하고 五百年의 由緒가 깊은 이 古刹을 告別하얏습니다.

指 導 例 (11)

京城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 五十三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부슬부슬 비가 오네.

하날 에서 비가 오네.

햇님 달님 눈물 오네.

커덕비는 달님 눈물.

아침비는 햇님 눈물.

비가 오네, 눈물 오네.

二、教材觀 文學的 教材인데, 봄비가 올 때의 氣分

을 誦은 童謠이다. 첫봄 음산한 날 高요히 나리

는 비에 대한 여러가지 兒童의 想像을 鑑賞케 하고

文學的 趣味를 養成한 것이다.

저을철이 지나고 첫봄이 되면, 각급 가는비가 나

려서 얼었던 땅에 해도를 재촉한다. 부슬부슬 계속

하야 오는 모양은 아해들 마음으로 보면 마치는

물갈치 보일 것이다. 일기는 흐려 아침의 해든지 커

덕의 달이든지 다 구름속에 형적을 감출 것이다.

이것을 聯상하여 햇님 달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으  
로 여긴 것이다. 이 童心の 想像하는 모양이며, 文  
의 形式에 對한 美를 充分히 맛보이게 하야야 한  
다.

1、文……비가 부슬부슬 오는 모양을 보고 햇님 달  
님의 눈물로 여겨서 誦는 노래다.

2、挿畫……봄비가 부슬부슬 내려온다. 계집 아해는  
방문을 열고 이것을 내다본다. 아마 이 글과 같  
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마당에는 나무가 서있고,  
장독간이 있는데 장독이며 항아리가 노뿔다. 부슬  
부슬 오는 실같은 비는 윈 마당을 다 적시어 노코  
침하여서는 락숫물이 똑똑 떨어진다.

3、新語……부슬부슬, 하날, 햇님, 눈물, 달님.

4、補充語……봄비, 장독, 장독간, 침하, 락숫물

5、新字……했

三、指導方法 大要 (三時間 取扱)

1、自由讀(自己의 힘으로 읽게 한다)……다들 읽오보  
아라.

2、試讀(엇더케 읽는지 試驗的으로 한 아이에게 읽  
혀보인다)……읽을줄 아는 사람 한번 읽어보아라.

3、讀法과 發音의 指導(잘못 읽는 곳과 不充分한  
곳을 問答으로 訂正 指導)……지금 읽은데 틀린 곳  
은 업느냐?

- 4、範讀(讀調며 發音 악트센等を 특히 注意하여 듣게 한다)……내가 한번 읽을터이니 잘 주의하여 들어라. 그리고 나와 같이 읽어라.
- 5、指名讀(다 읽을줄 알 때까지 읽어보인다)……자 너 한번 읽어보아라.
- 6、齊讀(소리를 맞추어서 읽게 한다)……자, 다들 소리를 맞추어서 읽자.
- 7、感想發表……이 글을 읽고 나서 엇더케 여기니?……(아조 자미 잇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것 같습니다)
- 8、大意發表……이 글은 무엇을 쓴 글이냐?……(봄에 비오는 것을 보고 지은 노래입니다)
- 9、問答……무엇을 가지고 지은 글이냐? 엇더케 오는 비냐? 어디서 오니? 그 비를 무엇으로 여겼니? 무엇의 눈물로 여겼니?
- 10、重要語句 取扱……(以上 問答과 同時에 熟語를 板書한 다음 읽는법과 語意指導)……이것을 읽어보아라.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니.……板書 要項 「비, 부슬부슬, 하늘에서, 햇님, 달님, 눈물, 커넛비, 아침비」
- 11、插畫의 發表와 問答……이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말을 하야보아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무엇 하는 것이냐?……(補充語 指導)
- 12、指名讀 及 齊讀(특히 文意를 생각하야가며)……자,

- 이런에는 글 뜻을 생각하야 가며 잘 읽는다.
- 13、文의 形式美에 對하야 問答……몇자씩으로 된 노래냐? 어디를 재미있게 썼니? 비가 오네를 몇 번이나 썼니? 어디가 말에 짝이 맞니?……
- 14、文意 確認……무슨 뜻을 쓴 글이냐……(비가 부슬 부슬 오는 모양을 보고, 햇님 달님의 눈물로 여겨서 지은 노래입니다)……엇재서 눈물로 여겼니 (햇님 달님이 구름에 가려서 날이 흐리니까 눈물을 낸줄로 안것 같습니다)
- 15、本文의 誦讀 練習……자 보지 말고 외여보자.
- 16、曲調를 부쳐서 노래하야본다……(달아달아 曲調로)
- 17、書取練習(本文의 視寫 及 誦寫)……책을 보고 한번 써 보아라……이번에는 외여서 한번 써보아라.
- 18、應用文 읽는 練習……자 이 글을 읽어보자.  
「비가 오네, 비가 오네.  
가는 비가 오네, 봄비가 오네.  
뿔등산 앞마당의 차엿든,  
눈과 이름이 모다 녹네.  
이 곳, 저 곳, 불이 흘러.  
빗물과 함께 개천이 되엿네。」

\* \*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自卷一至卷四]

教科書와 統一案과의 對照

(5) 李 浩 盛

三、다부 (통일안 난에는 교과서와 다른 것만 적음)

교과서 통일안

- 다(皆)
- 다들
- 다니다(行)
- 다니고
- 다달이(每月)
- 다듬다(均)
- 다듬어서
- 다듬이
- 다듬이질
- 다르다(異)
- 다른손님
- 다름
- 다름이
- 다름박질
- 다리(橋)
- 다리(脚)

교과서	다리를	통일안
	다리다(率)	테리다
	다리고	테리고
	다려다가	테려다가
	다만(只)	
	다물다	
	다섯(五)	
	다소간(多少間)	
	다스리다(治)	
	다스리라면	다스리려면
	다스하라(溫)	
	다시(更)	
	다음(次)	
	다음에	
	다음으로	
	다정하다(多情)	
	다정한	
	다정하야야	다정하야야
	다투다(爭)	
	다투어	
	따다(摘)	
	따뜻하다(暖)	
	따뜻하고	
	따뜻하야	따뜻하야
	따뜻하야커서	따뜻하야커서
	따뜻한	
따위		

교과서	대(竹)	통일안
	대(對)	
	대한	
	대다(觸)	
	대여	대어
	대다(支給)	
	대개(大概)	
	대관절	
	대단히	
	대답(對答)	
	대답하얏소	대답하얏소
	대답하얏습니다	대답하얏습니다
	대답하얏나	대답하얏나
	대답하시닛가	대답하시닛가
	대답할수가업다	대답할수가없다
	대답은	
	대답이	
	대답한즉	
	대략(大略)	
	대륙(大陸)	
	대륙의	
	대만(臺灣)	
	대만이나	
	대문(大門)	
	대문안으로	
	대안(對岸)	
	대왕(大王)	





말을수

파를수

말기

담그다

담그기도하고

담배(煙草)

담뱃

땀(汗)

땀을

땀으로

땀이

땀투성이

땀방울이

답장(答狀)

당도(當到)

당도한

당시(當時)

당신

당신이

당일(當日)

당일이

당자의

당좌예금(當座預金)

당하다(當)

당함으로

땅(地)

땃구

당하므로

더(增)

더구나

더듬다

더듬어

더럽다(汚)

더러일가

더러운

더럽히지

더우

떠나다(出發)

떠났소

떠나는

떠나서

떠들다

떠드니

데(處)

데굴데굴

떼(筏)

떼배는

떼다(取)

떼어주다

덕(德)

덕이

덕으로

덕행(德行)

떡(餅)

떡장사를

떡에는

떼어주다

대

떠나서

떠났소

떡뇨

떡뇨부터

떡메

떡보

던지다(投)

던지오

던지면

던진

떨

떨다

떨면서

떨어지다

떨어지지

떨어졌다

떨어져서

떨벼들다

떨벼들면서

떨벼들어

떨다(暑)

떨습니다

떨워서

떨운방

떨게

떨위라고

떨

떨칠기에는

떡잎

떡잎부터

떨어졌다

떨어져서

한글 연구 圖書 解題 (3) 方鍾鉉

羅韓小字典 一冊 印本

이 책 表紙에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면,

”Parvum Vocabularium Latino Coreanum ad 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Hongkong Typis Societatis Missionum ad enteros 1891”

이라고 記錄되어 있을뿐이고, 처음에 序文도 없고, 끝  
에 跋文도 붙지 않았다. 따라서 作者 氏名도 달리 記  
入된 곳이 없다. 그러나 昨年 十月二十八日에 朝鮮  
語學會 主催로 朝鮮語學圖書展覽會가 開催되었을 때에  
出品된 洪淳赫氏(咸興 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 所藏本の  
依據하면, 그 卷末에 寸구의 筆跡인지를 仔細히 究  
수 없으나, 昭和八年부터 四十三年前 方達智 著(日 明治  
十七年 光緒) 支那 香港에서 印刷 發刊이라고 記入된 것이  
있는 것을 보겠다. 물론 이 記錄의 信憑與否는 再考의  
必要가 充分히 있으나, 그러나 이 책이 香港에서 發  
刊된 것은 表紙 所記에 依하여서도 分明히 나타나 있  
는 일이다. 또 年代上으로 보아서도 西曆 一千八百  
九十一年의 明治 二十四年의요, 光緒 十七年인 것  
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오직 그 作者의 氏名만이 未

詳한 事實로 남을뿐이니, 推測하건던, 이 책이 한 個人의  
名義로써 發表된 것이 아니었고, 宣教會와 같은 어떠한 團  
體에서 編纂한 것이 아닌가 한다. 何如間 作者를 아는데는  
한번 方達智가 누군가를 알아볼 必要도 있는 줄로 안다.

다음으로 이 책의 著作된 動機를 살펴보면, 다른 字  
書類 即 韓佛字典에서나 韓英字典에서 우리가 보는 바  
와 마찬가지로, 外國人 宣教師가 布教의 目的으로 編纂된  
千辛萬苦의 結晶이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는 일일 줄로 안다.

이케 이 內容을 보면 一般으로 普通 辭典에서 흔  
히 보는 바와 같은 形式으로 되었으니, 即 한 페이지를  
縱으로 線을 긋고, 左右로 二分하여가지고 左側에 羅  
旬語를 A. B. C. 順으로 記하고, 右側에는 그 翻譯을  
一이 하였으니, 그 表示形式은 아래와 같고 總페이지  
가 三百 一로 終了되었다.

A, ab, abs, (Praep, abl,)	A	브러	저	로	에서
Secundus a rege		왕에	다음에	그	뒤에
A tergo,		뒤			
A Summo		위에서			
Zona ae, Sc	Z	아래의			

지금으로부터 五十年前에 다른 外國語도 아니고 멀  
리 羅旬語를 조선말로 解釋한 책이니, 이 點에서 아  
직까지 일즉 듣기 드문 稀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同時에 일즉 이런 책이 著作된 것을 기뻐하며, 아  
을러 오늘날까지의 存在를 感謝한다.

**한 글**  
**바루**  
**잡아**  
**쓰기**  
**힘**  
**익**

이 바른것. 이 틀린것. 자마다 후어서 시오. 보맛

**한 사람이 얼**  
**마나 땅이 있**  
**어야 하나 (中)**

틀스토티 지음

한본이 어땡게 하여 그 땅을 내  
 것을 만들고 하고 생각하였다. 그  
 래서 그 행인이 지나간 뒤에, 곳  
 길 떠날 준비를 하여, 집안밖은 안  
 해의게 말하고, 하인 하나를 데리  
 고 그리로 향하였다. 중로에서 어  
 느장장에 둘러쳐 술과 차를 많이  
 느장장에 둘러쳐 술과 차를 많이

사가지고 그 행인이 갈으친대로 갔  
 다. 삼백마일쯤 간즉, 목덕디에 도  
 달하였는데, 과연 그 사람의 말하  
 던바와 틀리지 않다.  
 무식한 그곳 사람들은 학본이 온  
 즉, 한아 들쭉 그 수대로 모혀  
 다. 학본이 등변 한아를 차가지  
 고, 자기가 온 소이를 그곳 사람  
 들에게 말하였다. 그리한즉, 그네들  
 이 크게 깃버하여, 여러가지로 잘  
 대접한다. 그래서 학본도 또한 자  
 기가 가지고 간 술과 차를 주어  
 처서 그들을 깃쁘게 하였다.  
 얼마 후에 등변이 학본의게 하난  
 말이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삼을 하

자고 합니. ...: 과연 잘 오셨습  
 니다. 우리들은 손님이 오시면 그  
 를 후대하난 습관임니다. ...: 더욱  
 좋은 선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  
 합니. 선불까지 주셔서 매우 감사  
 합니다. 우리들도 무엇이든지 원하  
 시는바를 드리자 합니다」  
 한즉, 학본이  
 「그려심닛가. 참 감사합니다. 나난  
 이곳 석홀 얼마 었고자 하오. 내  
 가 지금 가진 석홀 얼마 못되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게쳐 고역을  
 하여야 하오: 그러나 당신들은 이  
 령게 많이 석홀 가졌고, 그 위에  
 기름지구려. 나난 이때까지 이런  
 은 석홀 본 일이 업소」  
 이 말을 등변이 그곳 사람에게

말한즉, 그 사람들이 서로 속속  
실 짓거리나, 무론 학본은 무삼 소  
래를 하난지 모른다. 그러나 눈치  
로 여러 사람들이 도회하난줄은 짐  
작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빙글빙글하다가,  
필경 펼쳐놓고 웃더니, 얼마후에 다  
시 조용하여, 학본의게 갖쳐 향하  
여 등변을 뚫고쳐,

「자, 우리들이 다 함께 바라시  
땅을 드리자 합네다. 당신이 바라  
시난 곳을……」

하더니, 이때 여러 사람들이 무엇  
인지 작고 차함으로, 학본이 그  
답을 무른즉,

「아니오, 두령의게 물어보지  
안아니」

하면 아니된다 하야, 차호난것임네  
다」

맛춤 이때 더쪽에셔 우죽  
자를 쓴 사람 한아가 왔다. 그런  
즉 여러 사람이 금시에 조용하였

다. 이때 등변이

「더이가 두령이오」

하난지라. 이때 학본이 가지고온  
아름다운 옷과 많은 차를 그의게  
주었다. 그 두령이 그것을 밧고,  
공손하게 치사하였다. 그래서 학본

이 그 두령의게 무어라 하였다.

얼마있다가, 그 두령이 여러 사람  
들의 소망을 듯더니 고개를 숙

이면서 로시아 말로

「비 비, 그럼 당신이 바라시난

땅은 드리오리다. 땅은 바라시난대  
로 얼마던지 잇스닛가」

학본이 내심에 얼마던지 주겠다  
난줄로 생각하고,

「참 감사합네다. 무엇 그리 많이

주십시사난것이 아니오. 그러나 만

일 그 땅을 한번 내게 주신 다음

에난 당신네 자자손손 어니 때까

지던지 결코 내 가진것을 환하여

달라지 못하게 주었스면 좋겠습네  
다」

「그 좋습네다. 당신 소원대로 드  
리리다」

「내가 어니 장사의게 드르니, 그  
가 이곳에 와셔 땅을 많이 얻었

다 하니, 나도 과연 그와 갖치하

여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뭣든 습니다.

두령이 곧 고개를 숙이고,  
「암, 그리하지오. 내게 차인이 잇

스니, 그를 귀자에 보내셔 매매문  
치를 식히오리다」

「그럼 감은 어떻게 하나요, 감  
시요?」

「앗 말삼입닛가. 감은 하로에 천원  
씩만 합세다」

그러나 하로에 천원씩이란 말은  
학본이 아라듯지 못하얏다.

「하로란 어떻게 한단 세음이 오  
까. 몇가지 몇갈이 멧날가리라 하지  
나요?」

「우리들은 그런 세음은 몰음네다.  
그래서 그 하로라고 합네다.

당신이 친히 하로 동안 걸으  
기껏 걸어서 당신이 거르신 곳

은 말씀 당신 물건이 되오. 그것  
을 천원씩 줄시산 말입네다」

이 말을 듣고, 학본은 놀랐  
「얼마던지 말이오닛가」

그 모양이 괴이한고로, 그 두령  
도 꺾꺾 꺾 웃었다.

「비, 얼마던지 당신 발자취가 난  
곳은... 그러나 약속하여 두어야 할

일이 잇습네다. 무엇인고 하니, 당  
신이 그날안으로 떠나던 곳에 돌

아오지 아니하면, 그날 감은 그  
우리가 밧습네다」

「그러나 거른 길을 어찌 알닛가  
「그것은 하신이 광이를 가지고

가쳐서 이르는 곳마다 구멍을 파시  
오. ... 그러나 당신이 해지기 전  
까지 떠나던 곳으로 돌아와야 합네  
다」

### 投稿歡迎

讀者 여러분의 귀중한 意見을 이  
紙面을 통해하여 발표하시기 바랍  
니다.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意  
見.

一、感想文. 本誌나 혹 다른 책을  
읽고 감상된것.

一、通信文. 한글에 관계된것으로,  
本社나 知舊에게 글월 보낸것.

一、研究資料. 지방 사투리, 傳來童  
謠, 民謠, 傳說, 古談等 其他.

학본이 크게 기거워한다. 그래서  
이 잇는날은 새벽부터 떠나라고 자리  
에 누었다.

가락지 노래

金 泰 午

케비케비    쪄케비아  
 강남갔던    쪄케비아  
 너희들은    날은듯이  
 재고빠른    네날개로  
 여기까지    가보아서  
 먼대까지    가보아서  
 우리엄마    찾아다구.

◇  
 이가락지    너줄꺼니  
 이견우리    어머니가  
 그때그때    날꺼안고  
 손가락에    끼어주며  
 인케 많이    자라거든  
 날본듯이    끼이라고  
 주고가신    이가락지  
 ◇  
 이가락지    너줄꺼니

건너마을    장자집에  
 가서가서    팔아다가  
 그돈으로    노자삼아  
 여기까지    다니다가  
 우리엄마    만나거든  
 우리우리    옥동이가  
 자나깨나    우을면서  
 엄마엄마    찾는다고  
 어서어서    집에와서  
 옥동이를    그려안고  
 낮이면은    뒷동산에  
 나무하고    나물뜯어  
 쪄떡거리    장만하고  
 날켜볼어    밤이면은  
 옥동이를    옆에두고  
 다독다독    재우면서  
 자장자장    자장가야  
 우리애기    잘두잔다.

◇  
 마루밑에    히동새가  
 뜰광밑에    검둥새끼

잘두잔다    잘두잔다  
 자장자장    자장가야  
 우리애기    잘두잔다  
 옥동이가    잘두잔다  
 옥동이가    잠들거든  
 어머니는    날과함께  
 등잔밑에    마주앉어  
 바누질도    배워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베도짜고    그리자고.

◇  
 케비케비    쪄케비아  
 우리엄마    만나거든  
 어서빨리    와달라고  
 메도가고    케도가서  
 그래셔도    못보거든  
 터먼대도    가보아서  
 부대부대    우리엄마  
 부대부대    찾아다구  
 케비케비    쪄케비아  
 강남갔던    쪄케비아.

# 조선역사강화 (三) 상고편

## 신라가 일어났다

고구려가 케일의 목표를 백제에 두고 주력(主力)을 그리로 쓰는 동안에, 신라는 형편을 따라서 고구려에 순종하기도 하고, 백제와 화친하기도 하여가면서, 도읍을 월성(月城)에 두고, 위신 육부(六部)를 결속하며, 다음진한 십이국을 통일하고, 다음 변한 십이국을 복속하고, 다시 남방에 떠다니는 왜(倭)의 세력을 구축하며, 일변 한강 방면을 통하여 고구려와 지나의 문화 재화(財貨)를 힘껏 흡수하여 국세가 차례로 확장하였으며, 소지왕(炤智王)으로 부터 지증왕(智證王) 범흥왕(法興王) 진흥왕(眞興王)에 미치는 대략 일세기 사이에 관제(官制) 군정(軍政) 민속(民俗) 및 외교에 일층 비약(飛躍)을 시험하고, 더욱 경제력을 기르기에 힘써서, 위력이 멀리 백제를 능가하고, 삼국의 유력한 일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로(斯盧) 신라(新羅) 등 자형이 불일하던 국호를 신라(新羅)로 정하고, 거서간(居西干) 이사금(尼師今) 등 명칭이 불일하던 왕호를 왕(王)으로 정한 것이 지증왕시대(서력 五〇三年)의 일이며, 가락국(駕洛國)이 아주 신라에 들어간 것이 범흥왕 십구년(서력 五三二年)의 일

이요, 신라가 연호(年號)를 처음 쓰게 된 것이 범흥왕 이십삼년(서력 五三六)의 일입니다.

## 화랑도의 종류와 진흥

신라의 국민적 진장은 진흥왕 시대의 화랑(花郎)을 받드는 데 이르러 그 고조(高調)를 나타내었습니다. 원래 조선에는 단군 때부터 배천(拜天)하는 종교가 있어 국민 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개 국가의 킨례(典禮)와 민간의 속상(俗尙)에 그칠 뿐이려니, 신라는 국민 정신 진흥의 필요상으로 이 옛 도의 거룩한 힘을 활용하려 하여, 진흥왕 때에는 그 종교의 계도로 새로 마련하고, 교주(教主)인 화랑(花郎)을 국가로서 뽑아 맡기어, 그 모인 무리들로 하여금 오래도의(道義)를 서로 연마하고 지기(志氣)를 자주 겪은 뒤에 국가의 중요한 직임을 맡아보게 하니, 이 때문에 국가적 정신과 사회적 간능에 덕덕한 인물이 와작 일어나서 신라의 국운을 융창하게 하기에 헤아릴 수 없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불교의 과파짐

또 한가지 신라의 발흥에 대하여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불교(佛敎)의 융성입니다. 불교는 인도(印度)로써 지나로 흘러 들어와, 크게 동방 문화의 보람이 되더니, 고구려 소수림왕(小獸林王) 이년(서력 三七二年)에 진(秦)으로부터 그 법이 동으로 건너와, 그 뒤 십삼

년 곧 백제 <sup>一五</sup> 침류왕(枕流王) 원년(서력 三八四年)에 백제로 들어가고, 다시 사십여년을 지나 신라(눌<sup>六</sup>켜 마림간 訥祗麻立干 때)로 건너가려 약 반세기 동안에 우리땅에 불교가 골고루 퍼지었는데, 처음에는 고유<sup>一七</sup>의 신도(神道)와 충돌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조화점이 발견되고, 더욱 불교의 들어오던 동기가 불교 천칭의 당시 지나 곧 진(秦), 진(晉)하교의 외교상 필요에 있었던만큼, 불교인의 활약이 도리어 세간적 방면에 많아서, 그 정치 및 문화에 대한 공효가 매우 크고, 그 유행이 또한 신속하였읍니다. 더욱 신라는 범흥왕 진흥왕의 시대부터 화랑의 풍류도(風流道)로써 국민 정신을 진작하게 하는 일면에 불교로써 대외적 활약의 최고방편을 삼아서, 이로써 고구려를 정탐하며 지나를 격타하여 생각던 밖의 편의를 얻었읍니다.

**한강유역의 중심부대**

이렇게 진흥왕 시대에는 신라의 국력이 이 고작 충실하여, 밖으로 응비할 기회가 청속하였는데, 이에 제공된 중심부대(舞臺)는 실로 한강유역(漢江流域)이었읍니다. 한강유역은 낙랑(樂浪) 대방(帶方)의 시절이나 또 그 첩폐 이후에나 한갈같이 지나(支那) 방면에 교통의 중심이 되어 반도 남방의 국가에 대하여는 외교상 경제상 중요한 관문이므로, 이 지역을 자유로 쥘케

함이 그 국운의 소장(消長)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니, 백제나 신라는 진실로 기력을 펴려하면, 이 호흠구를 꼭 다투지 아니하지 못할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정복함에도 이 땅을 빼앗아두어야 될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삼국쟁패의최고절정**

백제가 장수왕(長壽王)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남으로 금강(錦江) 연안으로 쫓겨간 뒤에는 기어히 옛땅을 회복하려 하여 여러가지로 애를 쓰다가, 삼십년을 지나 성명왕(聖明王)때에 이르러, 왕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서 한성(漢城) 廣州)과 남평양(南平壤) 지방 京城) 등 한강 유역의 잃었던 땅을 찾았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이 기회를 타서, 백제를 도와가면서 죽령(竹嶺) 이외 고현(高峴) 이내 곧 한강 동편쪽의 열고을을 고구려로써 빼앗고, 인하여 그 이듬해에 백제가 한때 회복만 하고 능히 지지하지 못하는 한강 서남의 유역(流域)까지 차지하여, 신라의 북쪽 지경이 지방 강원도에서는 오대산(五臺山) 치악산(雉岳山)의 선(線)과 경기도에서는 임진강(臨津江)에까지 진출하여 반도의 중부에서 동해와 서해를 한대 연한 대국을 이루고, 이 한강유역의 차지한것은 신라로 하여금 비로소 직접으로 지나에 교통함을 얻게 하고, 반도에서 응비할 보무(步武)를 본



명히 얻게 하여, 그 반도 통일외 단서가 실로 이때로부터 붙잡혀 있습니다. 이 한강 재탈의 국면(局面)은 실로 삼국 재패의 시기중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막(一幕)입니다.

**신라진  
흥왕의  
공덕**

진흥왕의 백제와 협력하여 고구려의 남쪽 땅을 쳐 빼앗을 때에는 나이 겨우 십 팔세였으며, 왕의 이만한 큰 공업은 실로 일반 국민의 원기와 이를 잘 도솔한 이사부(異斯夫) 거칠부(居漆夫)같은 명장을 힘입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재위 삼십 칠년의 사이에는 국교의 보존, 불교의 흥흥, 국사의 편찬등 문교(文教) 방면의 공적으로 기록할 것이 많으니, 신라 패업을 넓힌 뒤에 신영도를 순시하고 세운 비가 경상북도의 창녕읍(昌寧邑)과 서울 북한산의 비봉(碑峰)등의 일천 삼백년의 바람비를 무릅쓰고 시방도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주해】** 一, 월성(慶州) 동남 문천(蚊川)을 대어 반달 모양으로 된 성터. 제 오세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 이십 이년(111 A. D.)에 쌓은 것으로, 주위 일천 이십 삼보니, 또 재성(在城)이라고 한다.

二, 육부(六村)이라고 하는데, 신라 제삼세 유리 이사금(儒理尼師今) 구년(32 A. D.)에 육부의 이름을 고쳐 고성(姓)을 주니, 곧 양산부(楊山部)를 양부(楊部)라 하

여 이씨(李氏)의 성을 주고, 고허부(高墟部)를 사량부(沙梁部)라 하여 최(崔)의 성을 주고, 대수부(大樹部)를 점량부(漸梁, 또 牟梁)라 하여 손(孫)의 성을 주고, 간진부(干珍部)를 본피부(本彼部)라 하여 정(鄭)의 성을 주고, 가리부(加利部)를 한저부(漢祗部)라 하여 배(裴)의 성을 주고, 명활부(明活部)를 습비부(習比部)라 하여 설(薛)의 성을 주었다. 이것이 모두 정주 군내에 있었다.

三, 소지왕(新羅) 제 이십 일세 임금. (479—500 A. D.)

四, 지증왕(新羅) 제 이십 이세 임금. (500—514 A. D.)

이년 소로 발가는법을 시행. 사년 국호와 왕호를 제정. 오년 상복법(喪服法)을 제정. 육년 주구현제(州郡縣制)를 정함.

五, 법흥왕(新羅) 제 이십 삼세 임금. (514—540 A. D.)

사년 병부(兵部) 설치. 칠년 율령(律令)을 반포. 또 관외의 공복(公服)을 제정. 십오년 불교를 시행. 이십삼년 원호를 세움.

六, 진흥왕(新羅) 제 이십 사세 임금. (540—576 A. D.)

구년 흥륜사(興輪寺) 건축. 십년 황룡사(皇龍寺) 건축. 십이년 고구려를 쳐서 열고을을 빼앗음. 삼십오년 장류불상(丈六佛像)을 지음. 삼십 칠년 원화(源花) 곧 花郎)를 비로소 받들다.

七, 사로 八, 서라벌(新羅) 사로와 서라벌은 다 같은 말로 좀

달리 쓰는데 불과하다. 서라벌의 「벌」은 별판이란 뜻으로 곧 고을이란 말이다. 이 밖에도 「斯羅, 斯盧, 新盧, 薛羅, 徐耶」라는 명칭이 한문 서적에 많이 보이는데, 역시 다

같은 말이다. 또 제림(鷄林)이라고도 하였다. 지증왕(智證王) 때에 이르러 이 여러가지로 쓰던 것을 일정하기 위하여 「德業日新, 四方綱羅」의 뜻을 취하여 「新羅」로 국호를 정하여 그 후로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다.

九, 거서간 一〇, 이사금 一 거서간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의 왕호인데 큰 임금 곧 대왕이란 뜻. 이사금은 임금이란 뜻. 신라가 처음에 여러가지 명칭을 한문으로 행하지 않고 순전한 국어로써 사용하였는데, 거서간 이사금 같은 것이 다 신라의 국어이다. 왕호에 대하여 이 밖에도 몇이 있으니, 좀 자세히 말하면, 시조는 거서간, 제이세 남해왕(南解王)은 차차웅(次次雄), 제삼세 유리(儒理)로부터 제십팔세 실성(實聖)까지 십육대는 이사금(尼師今), 제십구세 눌저(訥祗)로부터 제이십이세 소지(炤智)까지 삼대는 마립간(麻立干)이요, 이십이세 지증왕으로부터 이후는 왕이라 하였다.

一一, 가락국 一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는 나라. 처음에 임금이 없고, 아홉사람의 두령이 있어 백성을 다스리더니, 신라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십구년(서력 四二二)에 김수로(金首露)가 가락국을 세우고, 김해(金海)에 도읍하고, 십일세, 사백 구십 일년의 역사를 누리고, 신라에게 병합되었다.

一二, 화랑 一 신라 진흥왕(眞興王) 삼십칠년(서력 五七六)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용모가 이쁜 사내를 뽑아 곱게 꾸며서 가악(歌樂)으로 산수에 오유(娛遊)하게 하고 이를 인하여 사람의 사정(邪正)을 가리어 조정에 천거하

는 것이다. 이것을 풍월주(風月主), 원화(源花) 국선(國仙)이라도 불려서, 국가에서 신봉하므로 고대의 한 종교(宗教)가 된 것이다.

一三, 배천 一 단군께서 마니산(摩尼山)에 제천단을 쌓아 천신께 제사하시었으므로부터 역대에 배천을 마루로 삼았었다. 부여(扶餘)에서는 영고(迎鼓), 마한(馬韓)에서는 천군(天君),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백제에서는 교천(郊天)이라 하니, 해마다 농사의 파종을 마칠 때나 또 추수를 다 마친 시월(상달)에는 천국에서 국민이 대회하여 주야로 음식과 가무로 즐기었다. 이것이 명칭은 각기 다르나 다 같은 배천의 뜻이다.

一四, 소수림왕 一 고구려 제십칠세 임금. (371—348 A.D.) 이년에 진나라 임금 부견(苻堅)이 사신과 몇 중 순도(順道)를 보내고 또 불상과 불경을 보내드리었으며, 사년에 지나 중 아도(阿道)가 들어왔으며, 오년에 초문사(肖門寺)와 불국사(佛國寺)를 창립하니, 이것이 우리 땅의 불교의 시작이다.

一五, 칠류왕 一 이백 제십오세 임금. (384—385 A.D.)  
 一六, 눌저마립간 一 신라 제십구세 임금. (417—458 A.D.)  
 一七, 신도 一 곧 배천교  
 一八, 대방 一 나랑(樂浪)과 한가지 고구려 중시대까지에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 설치된 차치 군현.

一九, 장수왕 一 고구려 제이십세 임금. (313—491 A.D.)  
 二〇, 성왕 一 백제 제이십육세 임금. (523—654 A.D.)

## 로빈손 절두인 표류기 (二)

론돈에 와서 얼마동안 머무는 사이에 친차에 고생한 일도 차차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차

차 살아적가매, 이에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찾는데, 이때에는 주머니 속에 돈이 꽤 많이 있었는고로,

짜니아 해안에 가서, 토인으로 더불어 무의할양으로 여러가지 불화를 실었소이다. 그러므로 사공노릇은 그만두고 신장의 권하는 말대로 배 타고 가는중에서 수학과

행선법을 배웠소이다. 이번 길은 매우 결과가 좋아서 이를 많이 남

겨가지고 론돈으로 돌아갔소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으로 재미가 나지 나의 모험심이 점점 더 일어나서 나중에는 후회막급할

환난을 당하였소이다. 둘째번 길에는 이친 신장은 죽

고, 그친 신인으로 있던 사람 하나가 그 뒤를 들어친고로, 나에게 매우 편한 일이 많았소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당초의 본친과 이번이 이 남은 돈을 다 들여여 러가지 불화를 실고 카나리도를 바라

라고 떠났소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리는 보기고 사하고, 몸까지 죽을 지경을 당하였소이다. 주야를 쉬지 않고 한참 배를 운권하여가는데, 어느날 새벽

에는 러어키해적을 만나서 피차간 싸우기를 시작하였으나, 중과가 상

적하지 못하여 필경 우리 편이 대패를 당하여 모두 부모가 되어서 모로코국의 어느 시골로 불들려갔는

데, 그중에서 나는 해적 신장의 집의 노예가 되어 갔소이다. 처음에 생각하기는 해적의 집에

로 가면, 오죽 몹시콜리요 하며, 매우 걱정을 하였더니, 가서 본즉 그다지 혹독하지는 않고 나의 어리고 자질이 영리하여 심부름을 잘

한다 하여, 친수히 사환노릇을 시킬뿐이려이다.

그 집에 있으면서 내 목격은 이 루지도 못하고 이 지경에 빠진것을 생각하면 원통하기도 하고 분

하기도 하여, 매양 기회만 있으면 도주할양으로 틈만 엿보고 있었으나 이년동안은 마침내 기를 얻을

지 못하고 덧없이 지내었소이다. 이러구려 나는 침차도 신장의 신

임을 얻었더니, 어느날은 신장이 나더러 동무 하나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손님 대접할 생친을 낚시질하여

오라 하는지라, 이친에는 낚시질을 가드라도 신장에게 말러가므로 마음과 같지 못한 일이 많더니, 이번에

는 내가 친권으로 가매 내 속중으로 「이것이 웬뎃이나. 하늘이 나를 불

상히 여기사 달아나도록 하시는것이로구나」 하고 외면으로는 수상스럽지 아니하게 여러가지 먹을것과 낚시질케

구와 총 등속을 작은 배에 실고  
대연자약하게 항상 말아두고 다니  
는 낚시러로 갔소이다.

가 앉아서는 얼마동안 낚시를 던  
져 보았으나, 한마리도 잡히는것이  
아니라 잡지를 아니하였소이다. 이  
권 지나에 창태공은 곧은 낚시로  
때를 낚았다. 합디다마는, 나는 다  
른 소망이 있어 그리한것도 아니  
나, 고기가 미끼를 와서 붙어도 일  
부러 줄을 채치지 아니하였소이다.  
그리하고 가치 잦던 사람에게

「오늘은 여기서는 한마리도 잡히  
지 아니하니 조금 더 바다 밖으  
로 나아가십시오」  
하여 배를 커어 나아갔소이다.

나아가서 얼마 있다가 내가 가지  
고 있던 노를 그 아이에게 주고  
열심으로 낚시대를 느리고 있는 동  
무묘에 가서 별안간에 그 허리를 꺼  
안아서 바다속으로 풍덩실 내어던  
졌소이다. 이 일이 매우 참혹한 일  
인듯하나, 나는 그 사람의 죽지는 아

니 할줄 아는고로 그리한것입니다.

그리한즉 아무리 장사라도 모르는  
틈에 당하였는지 아무 저항도 없  
이 바다로 떨어지자, 물속으로 들  
어갔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헤  
엄을 잘하는고로 즉시 얼굴을 물  
우에 내어놓고 나를 치어다보면서  
그저 건져 실어달라고 애걸하나,  
뒷일이 어찌될지 알수 없고 또 태  
위충으면 청가신일이 많을듯 하고  
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충을 집어  
들고 끝을 그에게 향하면서

「아니된다 아니되어. 너 혼자 언  
덕으로 헤엄해 가거라. 커것 보아라  
볼도 커리 거세지 아니하지 아니  
하냐. 네 만일 내가 이르는 말을  
듣지 않고 배결으로 왔단 보아라.  
이 총으로 놓아서 너의 목숨을 없  
이할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여 위협하였더니, 그 사람은 배에  
라기를 단념하고 언덕을 향하고 헤  
엄하여 갔는데, 헤엄으로는 선수인  
즉 필경 안전하게 언덕에 득달하

였사오리다. 그리하고 불불불 떨고  
있는 아이에게 향하여

「이놈아 너는 어찌하려는냐. 내가  
이르는대로 들을터이냐. 만일 그것  
이 싫으면 역시 바다에 던져 죽  
일터이다」

한즉, 더욱더욱 무서워하면서  
「그저 목숨만 살려 주시요. 그리  
하시면 당신께 충청으로 복종하여  
아무대라도 가고 아무일이라도 하  
오리다」  
하므로 살려 주었습니다.

이러커럭 해가 커문고로 나는 쫓  
이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배의 방향을 변하여 세시간동안을  
정신없이 커어 달아났는데, 이렇게  
줄곳 가기만 하면 내일 오후까지는  
적어도 육백리는 언덕에서부터 상  
륙하게 될듯하외다.

인하여 한밤을 지내고, 한낮이 거  
의 다하여, 해가 어스름할 때에 한  
편에 해안을 발견하니, 이때 우리  
마음의 기꺼운 법은 무엇으로 비

유할것이 없습니다. 좋은 절에 죽  
시 하륙하여보고싶으나, 맹수의 응  
크리는 소리가 나는고로 그도 못  
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이른날에 이  
르러서는 긴막긴한 먹을 불이 다  
없어진고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서 어리둥철하고 있은즉, 이런 눈  
치를 채우고 그 아이 이름으로 쭈  
리가 하는 말이

「나 혼자 잤다 오겠소이다. ....  
아무 걱정 하실것 없소이다....만  
일 토인에게 불들리면, 나 한몸만  
없어지면 그만 아니오니까....네,  
그러면 당신께서는 그대로 배짖을  
하실수 있지 아니하오니까」  
하거늘, 그 말을 들은즉 매우 기특  
하고 가당한 생각이 나서,

「그 무슨 말이냐. 죽는 지경이면  
둘이 한대 죽어야 하지. 또 그뿐  
아니라, 둘이 가면 설혹 만나더라도  
그까짓놈한테 죽을리가 있단말  
이냐」  
하고 둘이 약간 요기를 한 뒤에

맥주병 두개를 가지고 작반하여,  
하륙하여 맑은 물을 찾아서 절어  
왔으나 토인은 만나지 아니하고 말  
았읍니다.

이로부터 십 이삼일 동안을 날  
마다 날마다 남방으로만 행선을 하  
여 가니, 이는 만일 이편으로 가면  
세베어나 세베까 강변에 다다라,  
영국배를 만날듯 합읍니다.

그 어느 날은 뱃머리에 앉았던  
쭈리가  
「여보소, 여보소, 키기 배가 뵈  
읍니다」  
하는고로, 크게 기꺼워 나역시 바  
라본즉 과연 배 한척이 가는지라,  
이에 죽을 힘을 다하여 배를 쭈

어 그 배에 다다라 본즉, 그 배는  
을렌드 배임디다.

선장은 매우 좋은 뜻으로 우리들  
을 맞고, 포추갈말과 스페인말과 프  
랑스말로 우리들을 어떠한 사람이  
냐고 묻는듯하나, 친수의 알아들지  
못하였더니,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스코틀랜드 사람의 친인이 우리말  
로 통역을 하여주어서, 저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읍니다.

그래서 영국사람으로 야만에게 잡  
혀가서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도망  
하여 여기까지 왔노라 한즉, 여러  
사람들이 매우 동경을 표하여 주  
고, 우리들을 두렵게 대접하읍니다.  
(또잇소)

### 한글殘部

處理對하야

「한글」續刊 第一號부터 第九號까지 (此中 八號  
만 絶版) 全部 八冊을 特價 三十錢에 팝니다. 合  
符製本을 要하거든, 十錢을 添算하여 보내시오.  
또 今年 一月號부터 三月號까지의 三冊은 十五錢  
에 팝니다. 賣盡되기 前에 미리 사두시는것이 좋  
습니다

朝鮮語學會出版部白

# 朝鮮語學會規則

- 一 條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함
- 二 條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 三 條 本會는 京城에 들
- 四 條 但 地方에는 支會를 두기도 함  
本會의 入會는 本會員의 推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 五 條 但 入會를 許諾한 때에는 入會金 壹圓을 내어야 함  
本會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 六 條 本會員으로서 一年 동안 한 번도 모임에 出席이 없 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 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但 退會를 願하는 이는 幹事長에게 退會를 請하여야 함
- 七 條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 員으로 함
- 八 條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 三人을 두되, 그 중에서 幹事長 一人을 互選하여 本會를 代表하게 함
- 九 條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 本會員 三分 之一 以上의 出席이라야 함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 會員數의 三分 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 一〇條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기도 함
- 一一條 本會는 每月 한번씩 總會(土曜日) 月例會를 열음
- 一二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야 다음과 같 은 事業을 行함
  - ㄱ 講演會
  - ㄴ 講習會
  - ㄷ 講義錄, 學報, 研究叢書, 調查報告書, 關係古 支獻, 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 一三條 本規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 一四條 本規則에 未備한 것은 幹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 ○會員消息

金善琪氏 조선어학회의 해  
외연구생으로 작년 칠월에  
프랑스로 건너갔던바, 이번  
에 파리대학에 입학.  
金炯基氏 경신학교에 교  
원으로 들어가다.  
金炳濟氏 배재고등보통학  
교에 교원으로 들어가다.

## 한글 支社

鎮南浦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品川區大井水神町 姜鎬哲  
二〇七九 朴周陽  
載寧邑日新里 李明克  
鐵山邑東平洞 劉天德  
義州邑鄉校洞 朴潤元  
平北七坪市 金成煥  
尙州邑 金永斗  
統營邑 鄭德寶  
高敞邑 陳春海

## 社 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  
置하고저 하시는분은 한번 書  
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  
니다.

### 朝鮮語學會出版部

定 價		代金은
一 個月	七 錢	반듯이
三 個月	二十 錢	선금을
六 個月	四十 錢	要함。
一 年	七十五 錢	

昭和十年 三月三十日 印刷  
昭和十年 四月 一日 發行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金 台 俊 先生 著

# 朝鮮歌謠集成

菊判 二〇〇頁  
特價 八〇錢  
送料 六錢

本書는 新羅鄉歌 二十五首 百濟古歌 二首 高麗古歌 二十  
 二首 李朝 初期의 歌詞 五十首(附錄으로 申緯의 小樂府)로써 古  
 代朝鮮의 文學的遺產이요 社會史라 하겠으니 우리의 文字(한  
 글)가 생겨 나기以前에 조선말로된 歌詞 或은 文學이 있다  
 면 거위 이것뿐이니 이런意味에서 朝鮮最古의 唯一한 古典文  
 學일것이며 朝鮮의 詩經이라 하겠다.

朝鮮文學乃至 朝鮮學을 研究하려하는 사람이거나 或은 이  
 에 뜻한 사람이면 반드시 一讀하여야할 寶典이다.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日(毎月一日一回發行)

한글 第三卷 第四號

京府城 聖府城 志洞三番 振替京城 七六六〇番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